유한킴벌리 인권경영선언문

유한킴벌리는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(Respect)의 책임을 다하고,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힘쓰며, 모든 사업활동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.

본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가법과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원칙(‘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’, ‘유엔글로벌콤팩트’, ‘UN 세계인권선언’, ‘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(ILO)선언’ 등)을 준수하며, 임직원과 협력회사, 고객,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.

유한킴벌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8대 원칙을 선언합니다.

- 01 국가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합니다.
- 02 인권존중의 첫 과제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결정합니다.
- 03 법에서 정하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며,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.
- 04 고용과 노동 및 사업 활동 전반에서 차별과 괴롭힘, 강제노동,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.
- 05 공급망의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,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사전 예방에 노력합니다.
- 06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하고, 삶의 질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협력하며, 현지 주문의 토지권과 재산권을 존중합니다.
- 07 소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개선조치를 수행합니다.
- 08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으로써, 환경과 관련된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.

2025년 1월

유한킴벌리 CEO 이제훈